

Pangyo
Senior Welfare
Center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

2018.vol.01

板橋 板殿



그대 이미
보배 쌓인 곳에
왔으니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라

보배 쌓인 곳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했음을 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둘러보면, 지금 자기 자신이 선 자리만큼 고맙고
소중한 곳이 또 없다.
여기가 바로 보배가 가득 쌓인 곳이다.

캘리그래피 : 신소정 어르신



CONTENTS

- 02 인사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 이명희
- 04 축사
성남시장 은수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대표이사 원명

Culture_ 문화 프로그램

- 18 문화가 있는 삶 I
문화유산답사 '알쓸신답'
- 20 문화가 있는 삶 II
On Air '함께하는 라디오 봉사'
- 22 문화가 있는 삶 III
복지관 안의 미술관
'미술관 프로젝트 & 도슨트 양성교육'
- 24 문화가 있는 삶 IV
복지관에 있어 더욱 특별한 '인생도서관'

People_ 판교인

- 08 첫 만남 I
이야기가 있는 작은 피아노 연주
- 10 첫 만남 II
할아버지의 양지
- 12 첫 만남 III
신입사원 입사 스토리

주요사업

- 26 주요사업 소개
2018 6월~12월 주요사업

Together_ 함께

- 14 참여와 나눔 I
재능기부를 꿈꾸는 '가곡사랑 동아리'
- 15 참여와 나눔 II
나로부터의 치유 '또래상담가'
- 16 참여와 나눔 III
지역 안의 작은 올림픽 '플리마켓'

고맙습니다

- 28 아름다운 당신 I
만발식당의 미소천사 '정광희 자원봉사자'
선배시민 후원자 '고명순 어르신!'
- 30 아름다운 당신 II
자원봉사자 명단
- 32 아름다운 당신 III
후원자 명단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33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板橋 板殿

2018.vol.01

통권 제1호 발행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발행인 이명희 발행일 2018년 8월 편집인 신윤이, 안정만
진행 한지영, 곽우중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9 Tel 031.620.2810 Fax 031.703.5108
홈페이지 www.pangyonoin.or.kr 표지모델 최난식 김중남 조병순 어르신 디자인 디자인비니

노인의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실현하여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지향하는 곳,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이명희입니다.

청춘, 푸르른 봄은 한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젊은 시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봄이 지나고 햇빛이 뜨거운 여름이 오면 우리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걸까요? 청춘은 시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말처럼 사람이란 항상 젊은 존재입니다.

올 여름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았던 장마기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장마 탓인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의 푸르른 봄, 청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무더운 여름인 2017년 7월에 개관하여 8월 29일에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어르신, 직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힘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청춘이 없었다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오래 달리기도 불가능했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1년을 되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청춘을 기록하고 회상하기 위해, 또한 2017년 첫 발걸음을 내딛은 설레는 마음과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기관지 창간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성남시의 전통과 판교 신시가지의 통합, 노인 및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시니어부머 시대를 맞이하는 예비 노인과의 통합 등을 위한 노인복지플랫폼을 이루는데 기반을 잘 닦고 있는 2018년이라고 자평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실현하는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를 목표로 행복한 노년, 함께하는 지역사회, 노인복지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남은 가을과 겨울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푸르른 봄, 청춘을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이명희** 드림

congratulatory
message

축사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시장인 성남’ 민선7기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하고 싱그러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소식지 「판교판전」을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해 일선에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명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란 단어는 ‘삶’이란 단어에서 어원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삶’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동안 사는 일’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이 합쳐져서 삶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자로 ‘인간’을 풀어보면 ‘人’은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間’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 또는 틈을 말합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을 이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과 인연을 맺는 일은 쉬울 수 있으나 맺어만 놓아서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맺어놓은 인연은 화초를 가꾸듯 정성을 들여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곧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맞이한 성남시는 ‘하나의 성남’, ‘사람 중심의 시정’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경제와 복지, 인권과 존엄을 확대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와 참여, 광장과 신뢰라는 네 가지 원칙 아래서 ‘하나 되는 성남’을 위한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사람 중심의 시정을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향기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이곳,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는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판교판전」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성남시 노인복지를 대표하는 기관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기관지 창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대표이사 원명입니다.
 작년 여름 폭우와 폭염 속에 바지런한 손길을 재촉하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올 여름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성남지역 어르신들의 존엄하고 가치로운 삶을 위한 행복공동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기관지 '판교 판전'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우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 봉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심포교 사찰로서 미래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선도해 나감으로써 한국 불교의 새천년을 밝혀 나갈 중흥도량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봉은사의 모든 사부대중

과 신도들은 연등활동을 통한 보살행(菩薩行)을 실천하고 있으며, 자비와 복덕을 바탕으로 8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불가에서는 시절인연(時節因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특정한 시간과 공간, 환경이 조성되어야 인연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자신에게는 가치로운 삶을, 타인에게는 존엄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연기적 세계관과 공동체적 가치관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봉은과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야말로 시절인연이며 동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운 노인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1년 만에 가입회원 8,000여 명, 200여개 프로그램, 하루 이용자 3,000여 명이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배워가려는 전국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노인복지관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이처럼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행복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와 운영법인,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성원과 격려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동안의 숨결과 발자취를 담은 것이 '판교판전'이며, 여기에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한 이들의 노력과 땀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봉은사의 경판교에는 추사 김정희의 유작인 '판전(板殿)'이라는 편액 글씨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던 시기에 썼던 글씨입니다. 봉은사의 '판전(板殿)' 처럼 '판교판전(板橋板殿)'에도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 따뜻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이 가득 새겨지길 기원합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과 임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판교 판전'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대표이사 원명 합장



피아노 연주
재능기부

이야기가 있는 작은 피아노 연주

저의 스승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베풀고 살아야 한다.”

글 정계옥 어르신



제 본업은 화가입니다. 지금도 개인전과 여러 미술단체를 통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 벌써 반세기가 지났네요. 저는 대학 시절 전국대학 재즈 페스티벌(TBC 동양방송 주최)에서 대상을 2회 수상 했고, 졸업 이후에도 세시봉, 미라보, 인디안 등 음악그룹에서 연주활동을 해오던 중 발령을 받고 교직을 선택하게 되었죠.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30년간 몸을 담았지만, 항상 은퇴하면 내가 좋아하는 연주로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어 저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음악은 항상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요. 혼자 연주 할 때도 그 곡에 빠져있다 보면 무한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좋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한다면, 그 이상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타인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제가 연주할 때 회원님들이 진심으로 좋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어려운 곡 보다는 누구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곡, 편안한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실버세대는 값진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고요.

저는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라고 젊은이가 부러워하는 삶,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스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베풀고 살아야 한다.”** 🍵



광화문 교보문고
책 한 권 ('야생초록의')은
사들고 나오려는데 어느 서가
옆에 어딘 초콜릿과 국색이 들인
바구니 권익 권리가 문득이 생각났던
잠깐의 인연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바구니 신발을 끼고 돌아 돌보기를
책은 권익처럼 애써서 들여다보는 모습과
인간의 미소가 연의 흔적이
그 안에서 책을 끄는 듯 하며
이 그것을 그려.

2004. 3. 25 木
Dalbee S.O.K

할아버지의 양지

- 한정혜 -

광화문
교보문고

느닷없이
드리워진 양지(陽地)

공사판 짬 내어
들르신 것일까

책 한 권 펼쳐들고
신문지 깔고 앉아
돋보기 비춰보며
책을 읽는 할아버지

춧땀 흐르듯 흡족한 미소
먼지 뺨 골덴 옷소매

서가와 서가
사람과 사람의 틈새
먼 골목길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 비친 듯

신문지 밑으로
찬란하게 깔렸다
할아버지의 양지

한켠에 숨어
메모지 찢어
그림 한 장 그린다.

할아버지의 양지

KT&G 문학공모전 수상작
한정혜 어르신님의 '할아버지의 양지'



인터뷰 권익사회참여팀 곽우중

평소에도 시를 자주 쓰시는 편이십니까?

시가 좋아 일기장이나 낙서장 구석 여기저기에 시를 써놓는 습관은 아주 오래 됐어요.

당선된 작품인 '할아버지의 양지'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런 시를 적으셨나요?

2004년 3월에 교보문고에서 책 한 권 사들고 나오는데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책에 물입해 짓는 할아버지의 미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 한 장의 스케치를 그리게 되었죠. 그리고 14년이 흐른 올 1월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그때의 그 스케치를 보고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인 '시창작과 낭송반'을 수강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반이라 분위기도 시적이고 서로 친밀감도 대단해요. 분위기도 차분하면서 밝습니다.

격주로 한번은 시창작 선생님이, 다음 주는 시낭송 선생님이 가르치신답니다. 이렇게 복 많은 반이 또 있을까요. "나는 시를 쓸 줄 모르는데" 하셔도 시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자격은 오케이랍니다. 시반이 없는 복지관이 많은데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는 있다는 것도 큰 자긍심이네요.

지난 6월 말 복지관에서 김유정 문학관 나들이 갔을 때 3번 버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시낭송 선생님이 거기 타셔서 버스가 달리는 동안에 예정하셨던 낭송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복지관에 이렇게 시 인구가 깔려있구나 하고 그 수준 높음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우리 시반이야 몇 사람이 미리 낭송시들을 준비해 갔지만, 아무 준비 없이 온 분들도 "오래 전 외웠던 것인데... 할 수 있을지" 하며 처음에는 떨면서 일어나셨으나 일단 시작을 하니깐 술술 기억 속에서 끝까지 다 끌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를 재발견 하시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창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에게 시란 무엇입니까?

시(詩)야말로 인간 모든 정서의 근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유연하고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갈등이 줄어드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요. 🍁

신입사원 입사 스토리



〈 교육문화팀 〉

최정은

‘첫 술에 배부르랴’

저는 5월 2일 첫 출근을 한 신입직원입니다. 어르신들과 나들이를 준비하면서 처음 해보는 일에 벅박 거리기도 했지만 팀원 동료들이 잘 도와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들이에 가서 한 분 한 분의 어르신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볼 수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고 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과 어르신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격려는 큰 힘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의 따뜻한 미소와 표정에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꾸준히 노력해서 좀 더 능숙하게 일을 해나갈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o^



〈 건강체육팀 〉

이동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책임지는!

2017년 4월 11일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판교노인종합복지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공부를 하러 어린이도서관을 다닐 때 마다 “나는 반드시 1급에 합격해서 복지관에 취업한다!”라는 각오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판교노인종합복지관 1차 채용에서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복지관은 개관 전으로 사무실에 큰 책상과 의자, 노트북, 프린터만 있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빈 공간에 하나씩 물품이 들어오고 어느덧 근사한 사무실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변해가고 발전하는 복지관처럼 저도 실수투성이의 서툰 신입사원에서 이제는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복지사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발전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 교육문화팀 〉

김지윤



플러스(+) 되어가는 나의 첫 발자국들

항상 새롭고 기대되는 매일을 보내고 있는 밝은 웃음이 포인트인 김지윤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어르신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속에서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청와대 나들이’와 ‘전통문화유산답사’를 진행하면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도전한 공모사업 당선을 통해 어르신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_^♥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복지팀 〉

문창현



관계의 온도 - 경로당

2018년 1월 15일.. 이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졸업 후 1년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겪은 후 입사합격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쁨은 지금 떠올려보아도 흥분되고 가슴이 뛰니다.

입사 후 판교지역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맡았는데, 평소에 어르신들과 교류가 적었던 터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일단 복지관 홍보물을 들고 경로당에 찾아가서 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경청하면서 인연을 맺어났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먼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 어려움이나 실수가 있겠지만 차근차근 배우고 나아가면서 행복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신입사회복지사의 좌충우돌 직장생활

〈 권익사회참여팀 〉

허승연

복지관 개관 전에는 다른 기관을 견학하면서 우리 복지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고민하고, 어떤 어르신이 오실지 설렘 반 걱정 반 마음이었습니다. 개관 이후에는 신입회원교육과 여러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우리 복지관의 대부분의 어르신을 만나되었고, 무대공포증이 있는 제가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어 지치거나 기운이 빠질 때에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에서 매일 어르신들과 마주하고 지지고 북으며 좌충우돌일지라도 뜻깊은 직장생활을 해보고자 합니다.



재능기부를 꿈꾸는 가곡사랑 동아리

안녕하세요? 저희 '가곡사랑동아리'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곡과 맑은 동심으로 돌아가는 추억의 동요, 잊혀져가는 동요를 제대로 다시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면서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행복, 삶의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만들게 된 동아리입니다.

뜻이 같은 복지관 가곡교실 회원들이 모여 다양하고 좋은 곡들을 배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더 늦기 전에 저희가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음악을 알리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동아리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글 김정자
(가곡사랑 동아리 회장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동아리 총회장)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취미가 같은 회원들이 모이다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즐거움이 더욱 커져서 노년의 외로움도 잊고 사회적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앞으로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희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외까지 진출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슈퍼시니어가 되어 복지관을 한층 더 빛나게 하고 싶습니다. 🍀

나로부터 치유 또래상담가

글 이영자 어르신(또래상담가 수료)



또래상담가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아침이면 복지관에 출근할 생각에 설립니다. 복지관의 일은 즐겁고 보람된 일이 아주 많은데요, 무엇보다 '또래상담가' 교육을 받고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노인들을 상담하며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터라 이미 노인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복지관에서 '또래상담가' 교육을 받으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래 노인들을 상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상담하다 보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주변의 변화

이번에 함께 공부한 또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부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생각이 달라 대립되는 일들이 많아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 하셨는데요, '또래상담가' 공부를 함께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부부가 함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함께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그 부부는 경로식당에 함께 오셔서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행복을 나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래상담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또래상담가'는 같은 세대를 살아왔고 비슷한 삶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 잘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또래상담가'가 된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요! 🍀



지역 안의 작은 올림픽 행복이 오고가는 알뜰 플리마켓

플리마켓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세대간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이 오고가는 알뜰 플리마켓'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매월 3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플리마켓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님을 만나봅니다.

글 플리마켓 자원봉사자 채주석



안녕하세요. 봉사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채주석입니다. 노년기를 맞이한 어르신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플리마켓에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지난 겨울, 현장 실습지로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접하였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늘리며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실습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과 만나며 현장과 소통하고자 매월 플리마켓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플리마켓 봉사활동을 할 때와 지금 플리마켓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초기보다 플리마켓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참여자의 수와 판매되는 물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셀러로, 동시에 구매자로 참여하면서 더 풍성한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단위의 참여가 늘면서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겪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특별한 에피소드라기 보다는 매달 중고등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매달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함께 매번 새로운 플리마켓을 만들어 가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반응을 접하고 의견을 들으며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 활동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플리마켓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기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국가간의 '벽을 넘어서' 소통하는 것이 화두였고,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 그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그동안 나뉘고 분리되었던 지역 간, 세대간의 '벽을 넘어서' 소통하는 것이 새로운 화두가 되어감을 봅니다.

플리마켓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세대간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매월 마켓이 열리는 토요일 하루의 소중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Q&A





어르신의 애정가득한 프로그램! 알쓸신답

알면 알수록 쓸데가 많은 신기한 문화유산답사를 4글자로 줄이면 '알쓸신답'이 됩니다. '알쓸신답'이라는 프로그램명은 인기리에 방영된 TV프로그램 '알쓸신잡'에 모티브를 얻어 지어졌습니다. 매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유적지를 찾아 떠나보시죠~!

글 교육문화팀 김지윤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역사교실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유산 등에 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좋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따라 역사 강의뿐만이 아닌 실제 문화유산답사를 가기 위해 '알쓸신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답게 '알쓸신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알쓸신답' 접수는 아침 9시가 조금 넘자 바로 조기마감이 될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 어르신들이 인문학과 역사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신청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문화유산답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르신들께 답사가기 전에 사전 지식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알쓸신답'은 사전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뒤에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처럼 사전강의를 들으신다면 더욱 재미있는 문화유산답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월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양평외갓집체험마을에 갔었고, 2월엔 양평 보릿고개 체험마을, 3월 공주, 4월에는 수원 화성을 다녀왔습니다. 5월에는 강화도, 6월에는 춘천, 7월에는 여주 신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빼어난 전통문화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숨은 명소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쓸신답'은 사전강의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일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 높은 만족도, 늘어나는 담당자의 자부심과 뿌듯함. '알쓸신답'을 복지관 대표 프로그램이라 자평하고 싶습니다. ^-^



On Air 함께하는 라디오봉사

‘보이는 라디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카페 내 라디오 부스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기획부터 원고작성, 아나운서, PD 역할을 맡아 주체적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글 권익사회참여팀 우윤정

지난 2월, 90일 동안 ‘보이는 라디오’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함께하는 라디오 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육 수료 후 4월부터 ‘보이는 라디오’는 매주 월, 수, 금 12:30~13:00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원고와 음악을 준비 하시느라 일주일 바쁘지만 “큐!”사인과 함께 방송이 시작되면 추억 속 음악에 흥겨워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때론 방송 실수에 함께 웃기도 하며 건조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금)에는 로비층에서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방송을 보신 어르신들도 다 함께 즐기고 공감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보이는 라디오 활동소감

글 DJ 발자국, 박인자 어르신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한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얼음 걸어가듯 조심하며 서투른 몸짓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더 익숙한 아날로그 감성을 일깨우며 듣고 싶은 음악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열심히 퍼 나르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여러분의 복지관 활동에 즐거움이 되고 활력소가 되며, 서로 어우러지는 배려와 성숙함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많이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격려와 배려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술관이 어렵다고? 도슨트가 간다!

글 교육문화팀 장여진



다양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를테면 미술입문, 유화초급, 수묵화, 민화, 수채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관련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했던 '만남과 조우하다'는 성남문화재단이 소장한 12개의 작품을 복지관 1층과 2층에 전시하여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아가기

더불어 평생학습원 릴레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판교지역 어르신 문화공감 활동가 '미술관 도슨트 양성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예술적 능력을 발산하여 지역사회에서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 유명 작가의 작품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에서 도슨트 활동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슨트 실습 수업으로 현대미술관-덕수궁관에 갔습니다. 그 곳에서 활동하는 도슨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나중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봉사를 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저희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욕적인 어르신들의 모습에 교육 후 도슨트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도슨트 양성교육에 빠지다.

도슨트 양성교육은 지난 5월 9일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도슨트의 개념과 미술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동서양 미술에 대한 지식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동양 미술, 서양미술에 대해 알게 되어 도슨트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슨트 양성교육은 20명의 어르신들로 시작되었지만,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인하여 지금은 40명의 어르신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어르신들의 열정은 더욱 빛이 나고 있으니,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도슨트 활동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만 생각되던 미술관, 박물관... 도슨트 어르신들이 갑니다! 🎨



복지관에 있어 더욱 특별한 인생도서관

글 권익사회참여팀 곽우종

인생도서관은 도서전시, 영화상영, 독서모임, 자서전쓰기, 동화구연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사서로서 첫 직장인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 발을 디었을 때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이 타인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으며, 둘째로 사서도 처음, 사무직도 처음이라는 압박감이 있었고, 셋째는 도서관 책잡이 주제에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기는 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걱정과 신입사원의 어리버리가 합쳐져 팝핀 추는 사람처럼 딱딱하고 경직된 상태로 도서관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별 떨고 있던 제게 동료들은 따뜻한 조언과 긍정적인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인생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계획하였습니다.

4, 5, 6월 세 달간 인권도서전시와 영화 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의 도서전시는 도서관에서 특별한 도서를 소개하고 싶을 때(이를테면 백일장 등의 행사가 진행된 후) 혹은 특별한 기간(이를테면 수능 직전 각 대학교의 입시요강 책)일 경우 실시합니다. 그 외에도 상시 전시로 그 도서관에 위치한 지역의 특색을 띄는 향토 자료를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은 특별합니다. 이용자가 모두 노인이며 도서전시의 성격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4월엔 장애인인권, 5월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6월에는 노인고용과 노후생활이라는 주제로 어르신들께 다가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견학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은 보통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복지관이기에 가능했던 견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권도서관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침해 동영상 시청, 장애인 독서보조기기를 체험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던 중, 한 어르신이 제게 말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에만 신경 쓰느라 인권이나 차별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시대가 변했듯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한다.”

7월에는 ‘문화재 공부법’의 저자 조훈철 교수와 저자와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를 보는 안목-알아야 지킨다.’ 라는 주제였는데 매월 이루어지는 ‘알쓸신답 문화유산 답사’에 열정을 보이시는 어르신들답게 어르신들의 질문과 만족스러운 표정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니터를 핑계 삼아 알찬 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018 하반기 주요사업

*상기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연계검진-청력검진	•건강캠페인-건강한 식습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문화체험			
9	10	11	12	13	14	15
	•연계진료-치과진료 •인문학강좌-식물에서 배운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우울예방 캠페인	•경로당 임원진 간담회 •연화사와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행복증진 집단프로그램-브라보, 마이라이프		•플리마켓
16	17	18	19	20	21	22
	•건강강좌-어깨통증 •인권도서전시-생명권, 사형제도	•시민건강강좌-뇌출중&치매 바로알기	•매마수 공연-한국무용	•추석맞이 먹거리 장터 바자회	•추석공동차례지내기 및 행사 •추석맞이 먹거리 장터 바자회	
	프로그램 신규회원 접수(9.14,17)		프로그램 기중회원 접수 (9.12~13)		프로그램 신규회원 접수(9.14,17)	
	프로그램 정비기간(9.17~28)					
23	24	25	26	27	28	29
				•청와대 관람	•문화유산답사-경기 여주 •인권영화상영-데드맨 워킹	
30	추석(9.24~26)		프로그램 정비기간(9.17~28)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천절	•교통안전베테랑교실 캠페인		
7	8	9	10	11	12	13
	•문화공연-창의음악연구소 •문화유산답사 사전강의	한글날	•교통안전베테랑교실 관내 캠페인	•교통안전베테랑교실 관외 캠페인		
14	15	16	17	18	19	20
	•인권도서전시-노인인권 •건강강좌-관객행하는 나, 체면이요?	•노년설계 집단프로그램-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부부관계증진 집단프로그램-그대를 사랑합니까?	•성남시노인복지관협회 바둑대회		•플리마켓
	문화등북축제(9.15~19)					
21	22	23	24	25	26	27
	•운동특강-치매예방 •인문학강좌-약, 노년의 친구, 어떻게 친구로 지낼까?	•어르신 시민리더 양성교육 수료식	•경로당 임원진 나들이 •교통안전베테랑 관외 캠페인	•청와대 관람	•문화유산답사-경기 파주(통일전망대) •인권영화상영	
28	29	30	31			
	•지역주민교육-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특강		•매마수 공연-아쟁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서치라이트 포럼 •연계진료-한의학 진료	•이용자 간담회1 •건강캠페인-겨울 독감예방		•인권영상물 감상	•라디오봉사단 활동평가회	
11	12	13	14	15	16	17
	•이용자 간담회2 •초청공연-레인보우 오케스트라 •문화유산답사 사전강의					•플리마켓
18	19	20	21	22	23	24
	•건강강좌-반복적인 소화불량, 좋아질 수 있나요? •도슨트 자원봉사단 활동	•건축 아카데미 개강	•문화살롱 오픈닝			
	제2회 판교깊은가을문화살롱(11.21~27)					
25	26	27	28	29	30	
	•강사 간담회 •밥맛이 좋아지는 운동특강 •인문학강좌-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문화살롱 클로징	•매마수 공연-다도시연	•청와대 관람	•문화유산답사-강원 인제(자작나무숲)	
	제2회 판교깊은가을문화살롱(11.21~27)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지역주민교육-모기지론	•어르신 토론회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모임			
9	10	11	12	13	14	15
	•인문학 강좌-시니어를 위한 스포츠의학, 나이들의 즐거움					•플리마켓
	프로그램 기중회원 접수(12.12~13)		프로그램 신규회원 접수(12.14, 17)			
16	17	18	19	20	21	22
	•건강강좌-고혈압에 대한 모든 것					
	프로그램 신규회원 접수(12.14, 17)		프로그램 정비기간(12.20~31)			
23	24	25	26	27	28	29
	•운동특강-고혈압 예방	크리스마스	•매마수 공연-팬플루트	•청와대 관람	•문화유산답사-경기 양평(용문사)	
30	31					
	프로그램 정비기간(12.20~31)					



만발식당의 미소천사 정광희 자원봉사자

정광희 봉사자님은 2017년 7월 복지관 개관 초기부터 급식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친구분의 말씀으로 급히 식당에 내려와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담당자의 지속적인 연락에 여러 번 나와 활동을 해보니 재미와 보람을 느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서 행복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복지관에서 급식봉사자 인원이 부족한 날에 연락을 드리면 흔쾌히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정광희 봉사자님은 항상 미소가 가득해 회원분들이나 다른 자원봉사자분들의 칭찬도 자자합니다. 식당 입구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하여 안내하는 정광희 봉사자님은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처음 접하게 된
정광희 자원봉사자를 만나봅니다.

글 지역복지팀 이기환

고마운 자원봉사자님께..

1일 700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만발식당에서 활동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항상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 내어 봉사하시는 만발식당 모든 봉사자님 고맙습니다. 내 집처럼, 내 일처럼 열심히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만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타인에게 권하는 선배시민 고명순 어르신

글 지역복지팀 이기환

고명순 어르신에게 후원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이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또 기부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어르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았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첫 정기후원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내데스크에 있는 후원용지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나눔의 취지가 잘 적혀있는 후원용지였어요. 작은 금액을 내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이면 크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을 보태는 것이지요.

이번 ‘5월애, 나누어봄’ 후원나눔축제에서도 큰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번 후원나눔축제를 통해서 복지관에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금단으로 활동하면서 복지관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여러 회원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큰 돈을 후원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회원 분이 좋은데 써달라며 흔쾌히 5만원을 후원해 주신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복지관이 생기면서 행복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꼭 전하고 싶었는데, 어르신 복지를 위해 애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 자원봉사자

아름다운 당신

일반
(2017.5~2018.6)

강경자, 강동현, 강민균, 강복란, 강성분, 강승구, 강예진, 강우식, 강위숙, 강일우, 강임숙, 강정석, 강정희, 강종민, 강지호, 강찬건, 홍지호, 경만수, 고기영, 고명순, 고미혜, 고소영, 곽은영, 곽혜영, 구분류, 구정희, 구혜경, 구혜자, 권경욱, 권락용, 권명소, 권순기, 권승록, 권영만, 권영민, 권영은, 권정애, 권준희, 권춘희, 권필순, 금매하, 김건영, 김경모, 김경목, 김경문, 김고운, 김광미, 김광수, 김귀옥, 김금규, 김금분, 김금순, 김기백, 김기성, 김기욱, 김기웅, 김기환, 김나연, 김나위, 김낙희, 김남우, 김남정, 김다운, 김다인, 김대현, 김대환, 김동구, 김두현, 김미영, 김미정, 김미화, 김민각, 김민경, 김민기, 김민승, 김민우, 김민정, 김민제, 김민혁, 김범준, 김병준, 김보경, 김비미, 김사랑, 김서연, 김서현, 김서희, 김석호, 김석희, 김선량, 김선숙, 김선혜, 김선화, 김성분, 김성아, 김성영, 김성윤, 김성현, 김소연, 김소정, 김수린, 김수민, 김수연, 김수은, 김순란, 김순복, 김순애, 김순청, 김승미, 김승용, 김승현, 김양숙, 김양희, 김여진, 김연호, 김영순, 김영은, 김영임, 김영현, 김옥빈, 김옥희, 김용우, 김용희, 김용배, 김원향, 김유진, 김윤서, 김윤주, 김윤택, 김용구, 김용우, 김은숙, 김은정, 김은희, 김의정, 김의진, 김인규, 김인숙, 김인순, 김정민, 김정순, 김정애, 김정희, 김종건, 김종문, 김종진, 김주은, 김지영, 김지원, 김지환, 김지희, 김진숙, 김채연, 김채원, 김철희, 김춘란, 김한상, 김해득, 김향경, 김향정, 김 현, 김현경, 김현미, 김현민, 김현석, 김현숙, 김현승, 김현웅, 김형관, 김형자, 김혜경, 김혜민, 김혜선, 김혜숙, 김혜지, 김홍남, 김호녀, 김희연, 김희용, 김희자, 김희재, 나대균, 나성희, 나재준, 남유진, 노재덕, 노현숙, 노환인, 도나연, 두영숙, 류근우, 류성렬, 류지훈, 류현태, 명정희, 문경산, 문경화, 문관영, 문남미, 문지연, 문희진, 문희정, 민다정, 민명식, 민영미, 민영식, 민용희, 민정기, 박경희, 박근휘, 박길순, 박난희, 박덕우, 박동연, 박명자, 박미영, 박민솔, 박삼례, 박상진, 박선하, 박성만, 박세민, 박소연, 박수진, 박양부, 박양분, 박연정, 박영임, 박용상, 박유미, 박윤서, 박윤아, 박은미, 박재용, 박재은, 박정순, 박정원, 박정화, 박정훈, 박준민, 박종현, 박지우, 박진희, 박찬숙, 박찬욱, 박찬형, 박창욱, 박채림, 박채빈, 박철진, 박철휘, 박현우, 박혜련, 박효진, 박희원, 방경숙, 배남영, 배소연, 배수빈, 배영숙, 배정화, 백선민, 백승윤, 백종호, 백준석, 백지원, 변경숙, 변민서, 변상훈, 변순석, 서난수, 서남주, 서동자, 서상순, 서순옥, 서은하, 서정희, 석영희, 선유순, 설채린, 성미숙, 성수은, 성영숙, 성창근, 손광성, 손미현, 손민지, 손수진, 손순옥, 손순임, 손슬기, 손애선, 손우정, 손윤정, 손은정, 손재복, 손정식, 손정식, 손지화, 손현아, 송경선, 송남섭, 송명숙, 송선숙, 송순애, 송시윤, 송위혁, 송인선, 송재강, 송재환, 송진우, 송태웅, 송현욱, 송호창, 신강석, 신금희, 신민지, 신부예, 신석희, 신숙례, 신영숙, 신영옥, 신윤상, 신을선, 신재숙, 신정자, 신채린, 신혜정, 심규리, 심규순, 심민정, 심의규, 심정윤, 심정현, 안미숙, 안세희, 안여주, 안영무, 안예진, 안주영, 안차선, 안청자, 안치형, 안태영, 양명숙, 양서윤, 양성자, 양승근, 양승호, 양영미, 양완식, 양정자, 양정희, 여정숙, 엄미선, 엄민영, 엄중흠, 여미성, 오문용, 오민지, 오선민, 오선우, 오세은, 오수근, 오수아, 오순자, 오영자, 오임순, 오정자, 오현숙, 우미경, 우순자, 우정혁, 원재자, 위경영, 위유란, 유금순, 유기남, 유나혜, 유남식, 유대식, 유덕기, 유명선, 유복순, 유부근, 유석선, 유석재, 유순자, 유승아, 유승연, 유승욱, 유명미, 유은순, 유정식, 유정아, 유해인, 윤갑숙, 윤수희, 윤용훈, 윤원분, 윤재박, 윤정규, 윤정명, 윤제룡, 윤종필, 윤지영, 윤지은, 윤창연, 윤현철, 윤희경, 은정수, 이가현, 이경자, 이경진, 이규리, 이근학, 이근호, 이금선, 이기란, 이기일, 이 다, 이다연, 이다운, 이도훈, 이동숙, 이동준, 이명자, 이명희, 이미정, 이민경, 이민희, 이봉화, 이부임, 이삼순, 이상준, 이상호, 이상희, 이선영, 이성경, 이성철, 이성호, 이 슨, 이숙자, 이순이, 이순희, 이승연, 이승우, 이시연, 이연주, 이영숙, 이영욱,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예은, 이옥자, 이용우, 이유석, 이유욱, 이윤서, 이은숙, 이은주, 이인숙, 이자영, 이재석, 이재숙, 이재우, 이재홍, 이점순, 이정기, 이정민, 이정아, 이정학, 이정화, 이정희, 이종섭,

이종애, 이주연, 이주열, 이주영, 이주은, 이주호, 이주희, 이준배, 이지연, 이지영, 이지윤, 이진벽, 이창석, 이체련, 이춘애, 이풍자, 이필연, 이현서, 이현지, 이현호, 이혜원, 이혜진, 이호경, 이홍열, 이효나, 이희준, 임동현, 임동희, 임등헌, 임말자, 임선희, 임수주, 임수현, 임승오, 임윤임, 임정규, 임창규, 임채철, 장동수, 장민서, 장민재, 장민환, 장선갑, 장순재, 장승준, 장예지, 장옥자, 장원태, 장윤영, 장은하, 장은화, 장인국, 장재엽, 장종호, 전미생, 전병화, 전순희, 전일옥, 전진숙, 전호영, 정가을, 정경숙, 정광준, 정광희, 정근영, 정금전, 정미숙, 정미애, 정민구, 정상선, 정성희, 정순동, 정애현, 정연수, 정영랑, 정우숙, 정 윤, 정윤비, 정윤우, 정은순, 정은주, 정인혜, 정주현, 정지영, 정지훈, 정진주, 정철중, 정해선, 정형태, 정혜련, 정혜순, 정혜원, 조덕연, 조동숙, 조동임, 조란희, 조미영, 조상아, 조성갑, 조성희, 조수자, 조아현, 조영래, 조영아, 조옥녀, 조옥연, 조용석, 조은선, 조정하, 조준희, 조진숙, 조진혁, 조진희, 조현웅, 조현태, 조혜숙, 주미숙, 주상우, 주승윤, 지나울, 지정림, 지혜자, 지 훈, 진선미, 진성환, 진은애, 차수민, 채두리, 채원희, 채주석, 채현선, 천상희, 최경자, 최난식, 최명임, 최민성, 최복현, 최상도, 최생엽, 최선화, 최성만, 최성희, 최순주, 최승자, 최승희, 최옥도, 최옥자, 최원해, 최유빈, 최윤석, 최은선, 최인숙, 최인자, 최인희, 최일식, 최정자, 최종섭, 최중철, 최주달, 최주리, 최진순, 최찬수, 최태원, 최하준, 최해연, 최현숙, 최형숙, 최희석, 추현영, 탁예리, 평계숙, 하장석, 한경순, 한경옥, 한금주, 한명성, 한아리, 한우영, 한유순, 한윤정, 한정태, 한필남, 한현임, 허민웅, 허숙현, 허유빈, 허윤제, 허익숙, 홍기창, 홍봉숙, 홍순옥, 홍승일, 홍인숙, 홍인택, 홍재철, 홍제관, 홍종혁, 황기욱, 황말순, 황서영, 황선준, 황세빈, 황세훈, 황솔하, 황유정, 황은빈, 황찬호, 황해옥, 황현석

단체
(2017~2018.6)

낙생농협, 방범대, 백현새마을부녀회, 백현아침요가, 봉은사정진3팀, 불자연합회, 산성물산, 삼성SDS, 성남농협,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성남직능플랫폼, 웰빙에어로빅, 윤종필의원실, 정오와함께하는봉사단, 청사모, 판교라이온스클럽, 기타

어르신
(2017~2018.6)

고명순, 김동석, 김동현, 김미정, 김봉준, 김삼홍, 김원향, 김윤택, 김인숙, 김재명, 김진숙, 김춘란, 김향정, 김현숙, 김호녀, 박양부, 박인자, 박재만, 서순옥, 석영희, 송선숙, 안영무, 안영소, 안청자, 양명숙, 오수근, 오순자, 유부근, 이명자, 이성철, 이순이, 이영숙, 이영자, 이은숙, 이필화, 임철호, 정은순, 정희순, 조동숙, 조동임, 조병순, 조수찬, 조웅진, 조유진, 지정림, 최금례, 최난식, 최남신, 최무연, 최복현, 한명성, 한정태, 한정혜, 한현임, 허림, 홍순옥, 홍인숙

Thank you

> 후원자 아름다운 당신

후원자 (2017.5~2018.6)

개선스포츠, 고명순, 곽우중,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권형용, 김경훈, 김군자, 김근석, 김금분, 김금순, 김동우, 김보경, 김수영, 김영용, 김원화, 김종길, 김주연, 김지윤, 김찬호, 김홍남, 김홍현, 남미경, 남정덕, 노가연, 농협성남시지부아너스클럽, 디자인비니, 롯데쇼핑(주), 모범훈(이현숙), 문창현, 박경희, 박동연, 박병화, 박상은, 박정희, 박준영, 박지희, 복지관안전지킴이, 불교사암연합회,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봉은, 삼가연정, 삼성물산, 삼성전자,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덕회, 송관호, 송낙순, 신동주, 신윤이, 신지은, 심만섭, 안정만, 양은혜, 오신탉, 오종신, 원향연, 유길자, 유부근, 윤상숙, 윤석경, 이기일, 이기현, 이기환, 이명희, 이민석, 이수탁, 이시진, 이연화, 이영옥, 이옥자, 이자영, 이중의, 임상호, 장여진, 전진숙, 정경선, 정광희, 정오영, 정한천, 조문정, 주식회사씨마가드, 주일규, 진성욱, 최명신, 최종택, 태평1복지회관, 티케이정형외과, 편창욱,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선영, 한송이, 한애련, 한정혜, 한현임, 허명희, 허여선, 황송노인종합복지관

Thank you

후원금 사용내역 (2018.1~2018.6)

수입		지출	
전년도 이월금	5,272,400원	공모사업	7,082,180원
지정후원금	120,000원	교육문화사업	500,000원
비지정후원금	22,367,663원	후원사업관리	142,175원
합계	82,487,663원	합계	7,724,355원

후원품 사용내역 (2018.1~2018.6)

수입		지출	
전년도 이월금	2,780,000원	저소득어르신	2,000,000원
후원물품(71건)	8,940,999원	주간보호센터	232,000원
합계	8,940,999원	합계	2,232,000원

자원봉사

남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2017년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로 등록되어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ove

활동절차



1) **접수**
내방, 전화, 홈페이지



2) **상담**
전화 및 방문상담



3) **교육**
봉사자교육 및
기관안내



4) **진행**
자원봉사활동



5) **실적 확인**
VMS 인증관리

신청문의

방문 월~금 / 9시~6시	홈페이지 www.pangyonoin.or.kr	전화 031-620-2877
--------------------------	-------------------------------------	---------------------------

후원

나눔으로 인한 큰 기쁨을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납부방식

CMS 매월 약정일 통장에서 자동 인출 CMS 신청서 작성	계좌이체 복지관 후원계좌로 입금 국민 093601-01-014737	직접후원 후원금 및 물품 전달 문의: 031-620-2877
---	--	--

후원에 참여하시면

- 후원하시는 모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후원 영수증 발급과 소식지 발송 • 송년의 밤 초대